



## 보도자료

▶ 고용서비스혁신단장 임무송  
▶ 고용서비스혁신단 서기관 김유진  
TEL : 02-503-9749  
FAX : 02-503-9330

▶ 2007. 3. 28(수) 배포  
▶ 총 10 쪽 (사진없음)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최신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고용지원서비스,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간다

- 노동부, 복지·취업지원 관련 6개 단체 및 1,000여개 일선기관과  
온/오프라인 연계 강화

- 국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더 쉽게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노동부는 3월 29일 11:30 서울서부고용지원센터에서 대한노인회(회장 안필준), 실업극복국민재단(이사장 송월주), 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장 서재익),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회장 김선영),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회장 정석구), 한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협의회(회장 김금순) 등과 함께 취업지원망 연계 강화를 위한 『함께 만드는 일자리희망 협약서』 체결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서 체결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허브기관이 되어 전국의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249개), 사회복지관(387개), 자활후견기관(242개), 여성인력개발센터(50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140개) 등 1,000여개 기관을 하나의 고용지원망으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 이로서 보다 많은 구인·구직 Pool을 확보하여 취업알선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직업적성·심리검사,

구직의욕 증진, 구직기술 향상,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 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지역의 저소득층, 고령자, 여성,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보다 쉽고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되었다.

■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과 전문 상담인력이 있으나 센터 수의 한계로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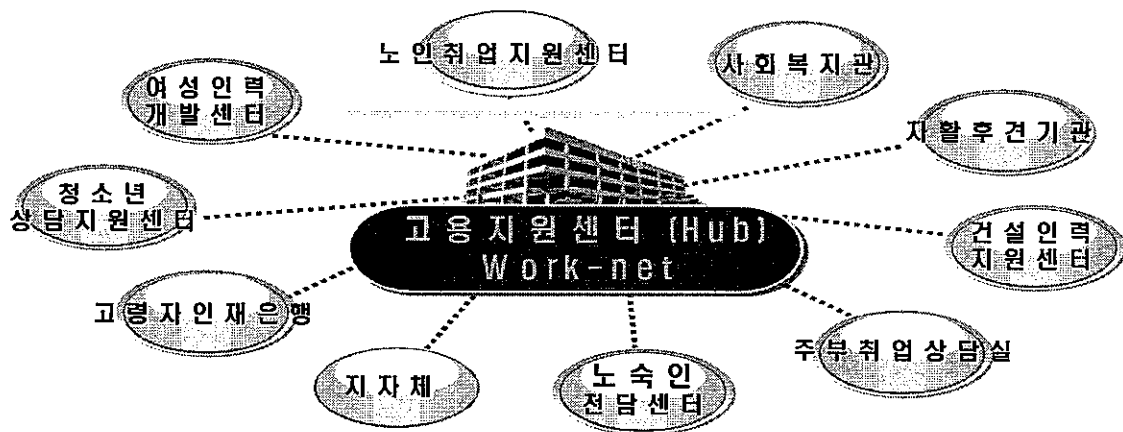
- 반면, 사회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은 각 지역의 취약계층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서비스와 함께 일자리 지원도 하고 있으나 구인정보와 프로그램,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 따라서, 노동부는 그간 확충된 인적·물적 인프라와 콘텐츠를 토대로 각 지역의 취업지원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고용지원서비스를 풍부하게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 이를 위해 노동부는 취업지원기관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부에서 개발한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매뉴얼도 보급할 예정이다
- 또, 채용박람회나 구인·구인 만남의 날을 공동 개최하고 협력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노동부에서 운영중인 전국적인 고용정보망인 Work-net도 일정한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춘 기관에는 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구인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렇게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다양한 기관들이 온/오프 라인으로 협력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은 가까운 기관에서도 보다 질 높은 고용지원서비스를 받고,

- 심층상담이나 직업훈련 등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는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등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사회복지관이나 자활후견기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을 이용했던 국민들이 기존의 복지, 상담 서비스에서 나아가 고용지원센터에서 보다 체계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 예를 들어, 가출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기본적인 상담을 받아 새 출발의 의욕을 다진후, 고용지원센터에 와서 CAP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직업훈련 등을 거쳐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 된다
- 노동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지원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2006년 186만명에서 2010년에는 400만명까지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붙임 1 >

### 취업지원유관기관 협약서(MOU) 체결식 개요

#### □ 체결식 개요

- 일시 : 2007. 3. 29. 11:30 (이어서 오찬 간담회)
- 장소 : 서울서부고용지원센터
- 참석자
  - 협약체결기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본부장  
실업극복국민재단 이사장 송월주 스님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서재익 회장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김선영 회장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정석구 회장  
한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협의회 수석부회장
  - 노동부 : 장관, 고용정책본부장, 고용서비스혁신단장 등
- 진행순서
  - 경과보고
  -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 센터 순시
  - 오찬 간담회

#### □ 후속 조치

- 중앙취업지원기관협의회 구성·운영 - 협력·지원방안 논의 체계 제도화(4월)
- 협약체결기관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보급 등 추진
- Work-net 연계 단계적 추진

## < 붙임 2 >

### 함께 만드는 일자리희망 협약서

『노동부』와 『대한노인회, 실업극복국민재단,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한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협의회』(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비롯하여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에 대한 취업지원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일하는 희망한국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협력과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 노동부는

1. 협력기관에서 프로그램 진행자,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협력기관 취업지원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매년 정기적으로 편성·운영한다.
3.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제작·발간하는 각종 직업·취업관련 자료들을 협력기관에 우선 보급한다.
4. 협력기관에서 의뢰하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워크넷, 고용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협력기관을 소개하여 구직자들이 가까운 협력기관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6. 구직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채용박람회, 구인·구직만남의 날, 동행면접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 협력기관은

1. 고용지원센터에서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는 협력기관이 운영하는 직업훈련 등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구직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고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채용 박람회, 구인·구직만남의 날, 동행면접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3. 협력기관 홈페이지에 워크넷을 연계하는 등 워크넷이 협력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4. 고용지원센터의 통합·연계 서비스 제공 시스템 마련에 적극 협력한다.
5.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협력기관 취업지원 담당자 교육과정에 관련 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6. 노동부에서 노동시장 전체에 대한 통계를 관리·분석하기 위해 구인·구직·취업 등 통계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력한다.

□ 노동부와 협력기관은

1. 상호 협력사업을 공동 개발하고,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데 함께 노력한다.
2. 상호 협력·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중앙취업지원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3. 각 지역에서도 고용지원센터와 협력기관의 지역 기관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 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여 2년간 유효하며, 협약관계 종료 통보가 없는 경우 2년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협력기관중 협약관계 종료 통보시에는 해당 협약기관과의 협약 관계만 종료)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7부를 작성 서명하여 노동부와 각 협력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7. 3. 29

노동부 장관 이상수 \_\_\_\_\_

대한노인회 취업지원본부장 송희순 \_\_\_\_\_

실업극복국민재단 이사장 송월주 \_\_\_\_\_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 서재익 \_\_\_\_\_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회장 김선영 \_\_\_\_\_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회장 정석구 \_\_\_\_\_

한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협의회 회장 김금순 \_\_\_\_\_

## < 붙임 3 >

# 협약 체결기관 개요

## I. 대한노인회 (취업지원본부)

### □ 조직 구성

- 대한노인회(회장 안필준)는 회원 220만명, 260개 지방조직(분회 2,001개소)
- 대한노인회의 취업지원본부는 본부조직과 전국 249개 취업지원센터로 구성(총 인력 275명)

### □ 주요 업무

- 구직희망 노인의 상담·알선, 사후관리,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교육 실시

## II. 실업극복국민재단

### □ 연혁

- 97년 외환위기로 수많은 이웃들이 실업의 고통을 겪게 됨에 따라 국민운동차원에서 실업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로 98년 출범
- 2003년 6월 '위원회'를 해산하고,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공익법인 '(재)실업극복국민재단'(이사장 송월주)으로 전환

### □ 주요 사업

- 청년실업네트워킹센터, 사회적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교보다솜이 간병사업,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사업, 실업정책 제언활동 등

### III.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 조직구성

- 「(사)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장 서재익)」은 전국 402개 사회복지관중 387개 사회복지관이 가입된 단체 (1989년 설립)

#### □ 주요 업무

- 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및 자원연계 네트워킹,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수행
- 사회복지관의 약 30%인 122개소에서 취업지원업무(구인·구직·취업알선) 수행, 담당자는 기관당 평균 1.1명

### IV.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 □ 연혁 및 조직구성

- '일하는 여성의 집'('93년, 노동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변경('01년 여가부), '05년부터 지자체로 업무 이관
- 운영주체는 YWCA, 한국부인회, 여성의 전화 등 20여개 기관으로 매우 다양
-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회장 김선영)」에 51개 여성인력개발센터중 50개소가 가입

#### □ 주요 업무

- 지역 여성들을 위해 사회교육, 직업훈련 등과 함께 각 센터별로 자체 방식에 따라 구인·구직, 취업알선 시행

## V.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 □ 조직 구성

-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회장 정석구)」를 전국 242개 자활 후견기관의 연합단체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조직

### □ 주요 업무

- 그간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자활 경로가 공동체 창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취업알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 광역자활센터(인천, 경기, 대구)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네트워킹을 통한 구인처 발굴 등 취업지원업무 강화 시도
- 일부 자활후견기관(경기광역자활기관 산하 10개 기관 등)은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수급자뿐만아니라 일반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 등록, 취업알선 수행

## VI. 한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협의회

### □ 조직 구성

-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전국에 광역지자체에 16개소, 기초지자체에 124개 설립
- 한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협의회(회장 김금순)는 전국 140개 센터의 중심 조직으로 활동

### □ 주요 업무

- 국가청소년위원회 발족 전에는 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부모교육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다가
- 최근에는 지역사회에서 방치될 가능성이 있는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